고양시 성석동의 창수공종회 정기총회

업자측에 경도된 집행부 거센 반발에 봉착

▲ 창수공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3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재사에서 안동권씨창수공종중 倉守公宗中의 2010년도 정기총회가 열렸다. 창수공은 추밀공파 양촌계 시조후 19세 휘 억憶으로서 광흥창수廣興倉守를 지내 창수공으로 호칭하며 그 묘역하인 이곳 성석동의 감내마을에 재사와 종중이 소재하고 있다.

전임 권태봉權泰奉 회장의 유고사임 후 후임 회장 선출을 봉쇄하고 임시 변법 과도기구로서 3인 공동대표제를 만들어 구성한 집행부는 그 3인 공동대표 중 연장자인 권병홍權炳洪씨를 의장으로 하여 개회선언을 하고 회의를 주재케 하였다. 그리고 사회는 권영건權寧健 총무가 맡아 진행하였다. 권병홍 의장의 개회 인사말이 있고 정기총회 자료 유인물이 배포된 다음 권오섭權五燮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였다. 다음에 권병홍 대표가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전차 회의록 낭독 보고를 하였다.

게시된 안건은 1호가 2009년 결산 심의, 2호가 정관개정안, 3호 2001년 계약 변경 심의, 4호 예산심의, 5호 전사무국장(권영호) (사건) 경과보고였다. 1호 안건은 보고로서 처리되고 2호 안건이 상정되었다. 종약 개정안 내용은 종회의 명칭에서 종중을 종회로, 종약을 회칙으로 바꾸며 임기 4년의 감사가 연임을 할 수 없게 한 조항을 고쳐 그중 1인은 연임이 가능케 하는 것 등이었고 이러한 개정안은 원안이 토의 끝에 수정통과되었다.

다음 '2001년 계약 변경 심의'라고 애매모호하게 표제해 놓은 3호 안건이 상정되었다. 상정과 함께 이 안건 토의에서는 큰 파란이 일어났다. 내역은 현재 종중의 금싸라기 토지 2만여 평을 헐값으로 임차하여 골프장과 청소년수련원 등 대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산힐스 주식회사가 그 토지 임차계약 만료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장기간 연장 체결해주려는 집행부의 집요한 기도에 대해, 이를 매종행위로 간주하는 다수 종원의 궐기성토가 충돌해 야기되는 파란이었다. 다수 종원은 중산힐스가 그동안 갖은 탈법과 불법 및 계약사항 불이행 등을 일삼으며 사욕을 채우는 한편 종중에는 6~7억원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 등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아 현재 종중이 2억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토지가 압류되는 등의 재정파탄을 일으키게 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 기화로 헐값의 불평등 계약의 종료시 연장 재계약이 어려울 것을 감안해, 미리 그 불평등의 연장 계약을 하여 다시 십몇년을 보장해 주면 새로운 계약보증금으로 2억원 정도를 더 주어 체납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중산힐스에 종속되어 패닉 현상에 빠져 있다는 지탄까지 받고 있는 집행부와 감사가 중산힐스와 계약을 사전 연장 체결하지 않으면 종중이 무너진다는 식으로 종원들을 모아놓고 협박하는 양상이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권병성權炳誠 공동대표가 제안설명에 나서 '체납세금으로 인해 문중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땅을 팔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계약 중인 문중토지를 (현 임차인에게) 미리 연장 계약해 주고 그 임대료(계약보증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더 좋은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병일權炳逸 종원이 '중산힐스에서 받아내야 할 거액은 수납할 조치를 아니하면서 미리 1년 6개월이나 기한이 남은 계약을 헐값 조건으로 연장하려는 저의와 이유가 무엇이냐'고 통렬히 공박하고 나서 중산힐스에 주객전도로 종속된 집행부를 성토했다. 권병돈權炳敦 종원은 '중산힐스와의 계약 건은 지난 추향의 임시총회에서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거론치 않기로 결의한 사항인데 이를 또다시 상정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이어 권영홍權寧洪 종원이 반대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3인대표의 집행부는 더 이상의 논리적 설명은 못하고 단지 중산힐스에서 보증금 2억원을 더 올려받아 체납세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그러면서 회의진행이 어물어물해지자 날치기 가결선포 등의 돌발사태를 우려한 권병일 종원이 이 안건의 처리에 대한 가부표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병홍 의장이 먼저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수해 달라 하였다. 이에 6인이 거수로 찬성하자 반대자의 거수는 청해보지도 않았다. 이날 참석인원은 63인이었다. 그리고 다음 계약시에 현재 보증금 2억원에서 2억원을 더 올려 4억원을 받겠다고 하는 이 토지의 계약거치가능 보증금은 30억원 정도로 경쟁입찰에 부칠 경우 누구 돈을 받을지 모른다는 게 이날 참석한 종원 일부의 뒷공론이기도 하였다.

당황한 집행부는 정회를 선포했다. 이때 권영건 총무가 이 시각으로 총무직을 사퇴할 것을 전격 선언하고 준비해 온 유인물을 배포했다. 2010년 현재의 창수공종중 사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배포한 그 유인물에는 종중이 곪아 있는 갖가지 문제점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에 집행부에서 권영건 총무에게 고성과 폭언을 발하면서 상당히 험악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회의가 속개되자 권병성 공동대표는 다시 중산힐스와 사전 계약 연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듣다 못한 권주승 종원이 '체납세금 때문이라면 땅이라도 팔아서 납부하고 중산힐스와는 연장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수세에 몰렸던 집행부 측은 이를 물실의 말꼬리잡기로 삼아 땅을 팔자고 했다고 해서 권주승 종원에게 집중 역공을 폈다. 그러자 권주승 종원은 또 땅을 꼭 팔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산힐스는 계약대상이 안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취지를 수정하면서 공방을 벌였다.

종원들간에 고성이 계속되자 권영회 운영위원이 중재안을 내 오늘 회의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진술한 3인을 포함하여 5인의 대표를 선출해 소위원회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안문제를 조사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중산힐스에 대처케 하자고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선정된 대표는 권병돈(서울 반포)·권병일·권병돈(서울 봉천동)·권영홍·권영건씨등 5인이었다.

이로써 중산힐스와의 연장계약안은 부결되고 그밖의 안건은 처리되지 못했다.

<사진權奇允 · 글權炳逸權奇允>

14면에서 계속

10시~18시 국궁장 활쏘기 체험

이 가운데 '남사당놀이'에서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이름낸 '안성 바우데기' 줄타기의 명인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3호인 권원태權元泰의 줄타기가 시연되었다.

안동권씨 문중을 대표해 참가한 대전종친회에서는 식전 행사의 문중퍼레이드 및 족보기증식과 박물관 개관식에 참가하는 것 외에 조상의 자랑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는데 소책자 '자랑스러운 나의 뿌리 안동권씨'와 '안동권씨 탄옹炭翁·유회당有懷堂 마을 문화유적' 등 2개의 팜플렛을 제작해 내놓고 있었고, '나의 뿌리찾기'를 별도로 기획하여 참가자로 하여금 아버지와 조부의 성함을 한자로 정확히 적어오도록 유도하는 행사를 벌였다. 또 화합행사 콘서트의 순서에서는 권문의 가수 '녹색지대 권선국'과 '춤추는 가위손 권혁순'이 출연하였다.

<사진 · 글 權五焄>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4 · 6배판 1630면에 집성된 시조태사공의 득성이전 김알지 大輔公이래 천년과 득성이후 천년의 榮辱과 곡절이 어린 안동권씨 姓族의 大河實錄!
文獻世鑑 · 太師權公實記 · 陵洞誌 · 陵洞實記 · 陵洞千年略史 등 안동권씨 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의 완벽한 국역주해와 원문조판 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 1만여장 분량으로 책자의 수명 1백년을 내다보고 제작한 최고급 寶藏本.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 · 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安東權氏宗報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5-5번지 파크뷰타워 807호
전화 02)723-4480 · 732-9139